

[사회]

광주 북부경찰 관내 치안 허술 '5대 범죄' 발생 전국 세번째

광주 북부경찰 관할 지역의 치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청이 열린우리당 구본회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북부경찰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2만8천905건으로 전국 234곳 경찰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북부경찰(3만 1628건)이었으며, 다음은 경기 수원 남부경찰(2만 9천379건)이었다.

북부경찰 관내 절도 사건은 1만1천 612건으로,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1만2천68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강간 사건도 451건이나 발생, 경기 안산경찰(518건)·경기 수원 남부경찰(517건)·서울 강남경찰(495건)에 이어 네 번째였다.

폭력 사건은 1만6천478건으로 인천 북부경찰(1만9천534건)·서울 중랑경찰(1만7천478건)·서울 강서경찰(1만7천377건)·서울 금천경찰(1만6천834건)·제주경찰(1만6천663건) 다음이었다.

'5대 범죄' 발생건수 상위 100위 내에 든 광주·전남 경찰서는 ▲광주 서부경찰 2만6천(26위) ▲북부경찰 1만8천999건(36위) ▲순천경찰 1만7천 82건(44위) ▲여수경찰 1만5천398건(58위) ▲광주 광산경찰 1만4천373건(68위) ▲광주 동부경찰 1만3천 347건(75위) ▲광주 남부경찰 1만1천 756건(84위) 등 8곳이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에 서는 광주 동부경찰(1천302.3건, 7위)과 순천경찰(872.9건, 18위)이 포 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기상특보 10건중 3건 '엉터리'

최근 2년간 1.3일에 한번꼴 틀려 '수치모델' 예측값도 '고무줄 편차'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특보 10건 가운데 3건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7월~2006년 7월 기상특보 오보 현황' 결과 드러났다.

◇10건 중 3건이 오보=기상청이 지난 2004년 7월 특보기준이 변경된 이후 2년 동안 발표한 1천944건 가운데 573건이 오보였다. 1.3일에 한 번씩 틀린 예보를 한 셈이다. 이는 전체의 2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호우 243건(42.4%) ▲강풍 199건(34.7%) ▲대설 65건(11.3%) ▲폭랑 20건(3.55%) ▲건조 15건(2.6%) ▲황사 15건(2.6%) ▲폭풍 해일 1건(0.2%) ▲태풍 12건(0.2%) 등 순이다.

반면 작중률은 ▲2004년 7~12월 78.2% ▲2005년 66.1% ▲2006년 1~7월 70.6%로 80%를 밑돌았다.

◇수치모델 엉터리=수치예보모델의 강수량 예측 정확도도 크게 낮았다. 집중호우가 하루 150mm가 넘었던 올해 13일 동안의 평균 강수량은 216.0mm였으나, 수치예보모델 예측 값은 71.4mm에 불과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월 9일 전남 및 남부지방에는 최대 152.5mm의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은 80mm로 실제 강수량의 52.5%에 그쳤다. 7

■실제 강수량과 수치예보모델 예측값

호우기간	호우지역	일시	24시간 누적 강수량 관측(최대값)	예보모델
7.9~10	남부지방	7.09	152.5	80.0
		7.10	262.5	126.0
		7.11	240.5	40.0
7.12~13	경기북부지방	7.12	302.0	35.0
		7.13	295.5	38.0
		7.14	351.0	107.0
		7.15	183.5	137.0
		7.17	103.5	99.0
7.14~18	중부 및 경상북도지방	7.18	127.0	75.0
		7.25	161.0	5.0
		7.26	96.0	33.0
		7.27	272.0	100.0
7.26~29	중부 및 경북북부지방	7.28	261.5	53.0
		7.29	216.0	71.4

▲수치예보모델=현재의 대기상태를 가지고 미래의 3차원 대기상태를 슈퍼컴퓨터로 계산한다. 고려 대상은 대기의 질량·에너지·운동량 보존(수평 x방향, 수평 y방향, 연직 방향)과 물의 질량 보존, 이상기체의 상태 등 7개 항목이다.

월 10일의 경우도 최대 262.5mm의 비가 내렸지만, 수치예보모델이 예측한 강수량은 126.0mm(48%)로 절반을 밑돌았다. 김 의원은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안개 사이로 '여우비' 10월 20일 (음 8월 29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흐린뒤 오전에 개고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광주	흐린뒤 맑	15~24
대전	흐린뒤 맑	15~24
대구	흐린뒤 맑	18~23
부산	흐린뒤 맑	16~24
서울	흐린뒤 맑	14~25
인천	흐린뒤 맑	13~25
경기	흐린뒤 맑	14~25
충청	흐린뒤 맑	14~25
전남	흐린뒤 맑	13~25
전북	흐린뒤 맑	14~25
경남	흐린뒤 맑	14~25
제주	흐린뒤 맑	16~23
울릉도	흐린뒤 맑	15~25
독도	흐린뒤 맑	12~2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북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0:55 썰물 < 06:18
13:14 13:35
여수 밀물 < 08:02 썰물 < 01:46
20:09 14:03

▲해돋이 06:42 ▲해질 17:52 ▲달출 04:42 ▲달짐 16:49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최저/최고	13/24	13/22	13/22	9/21	9/21	10/22

오늘 5mm 안팎 비...가을 가뭄 해소안돼

기온 '뚝'...감기 조심

비가 내리지 않아 속앓이 했던 농심(農心)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반가운 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월의 셋째 주 금요일인 20일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 때 비가 내리겠다"고 19일 예보했다. 그러나 강수량은 5mm 미만의 적은 양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1일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휴

일인 22일 평년(4~7mm)보다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가을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그동안 한반도 상공 상층 강풍대가 북쪽과 남쪽에 각 위치하면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안정적인 이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비가 내린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더 쌀쌀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만족도 '보통 이하'

준공영제 시민 50%가 몰라

광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실련이 오는 1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일주일에 3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341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8점을 기록, 보통인 3.0에 못 미쳤다. 5점은 매우 만족, 3점은 보통,

1점은 매우 불만을 나타낸다. 시민들은 배차간격 준수 여부에 대해 59%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가 잦다는 응답도 48%에 달했다. 요금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73%가 현재 요금(900원)보다 낮은 금액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연내 실시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50%가 모르고 있었다.

/김주정기자 jnews@

초중고생 16% '나홀로 놀토'

토요 교육프로그램 필요

초·중·고교생 16%가 토요일에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초등학교 2천410명과 중학생 1천18명, 고교생 910명 등 4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5.9%가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19.5%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생 15.3%, 중학생 12.9% 순이었다.

'쉬는 토요일에 등교한다'는 학생은 4.0%인 173명에 불과했다. '토요 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

느냐'라는 질의에는 '친구와 놀다'가 25.7%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7.5%, '가족이나 친척과 지낸다' 16.2%, '공부나 숙제' 11.2% 등 순이었다.

학부모 3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쉬는 토요일의 확대'로 학원이나 개인과의 수강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 맞벌이 부부대책으로는 46.5%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맞벌이 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문제라는 답변이 39.0%로 가장 많았고 문화시설 부족 18.3%, 사교육비 증가 12.3% 등을 들었다.

/황태홍기자 hwangtae@

23~27일 '충무·화랑훈련'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위한 '충무·화랑훈련'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31보병사단과 광주시·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지역별 예비군 중대 등이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일북부군 부속과

전투모에 적색 띠를 한 대항군(모의 간첩)이 실제 활동하게 되며, 지역별 예비군 등이 동원돼 FTX(Field Training Exercise) 훈련과 대테러 및 중요시설 방호훈련 등이 실천처럼 실시된다.

31사단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주민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역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린이 불조심 그리기 대회

19일 광주 금호패밀리랜드에서 '광주시 119 대축제' 행사 중 하나로 열린 '어린이 불조심 그리기 대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솜씨를 뽐내고 있다. 소방차 타기·화재진압·소방관 매직쇼 등으로 구성된 축제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5월 정신' 기리는 가을 선율

내일 5·18민주묘지서 음악회

5·18 정신을 기리는 가을 음악회가 21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사무소 앞에서

열린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소장 박경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R&B그룹 '크라이시비', 크로스오버 뮤직 그룹 '허브앙상블', 마술사 최승재씨가 출연한다. 광주 국제교류센터 한국어학당 학생들도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해 생생한 한국 체험담을 들려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가발

심는가발 평생!!

신상남 화제가된 최고의 만족감을 드립니다

남자신남녀 프릴모기발맞춤

노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실내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환기시스템

실내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필드시스템 ☎(02)603-2752